

## 哲學者로서 文學者에게 一言 作家의 熱情的 叡知 [上]

申南澈

作家가 原稿紙를 對할 때는 무엇인지 모를 興奮과 決意를 가지고 嚴肅한 氣分에 잠겨서 펜을 달릴 것이다. 이것은 그가 作品이라고 하는 한 개의 生命을 빚어낸다는 歡喜와 그 歡喜를 讀者로 더부러 나눈다는 口感에 잠기는 까닭일 것이다.

참으로 作家가 原稿紙를 앞에 노코 正坐하여 펜을 달릴 때의 心情은 마치 熱心히 무슨 體系를 組織하느라고 寢食을 잊고 努力하는 研究者의 心境과 같은 것이리라. 作家가 作品을 創作하고 詩人이 詩를 쓰는 그 瞬間의 眞摯하고 嚴肅한 態度는 想像만으로도 저절로 敬意를 表하게 된다. 그들이 지어내는 作品의 評價는 이러한 態度의 뒤에 오는 것이다.

그들은 남이 조که 말하든 언짢게 말하든 自己의 心血을 傾注하여 어떤 意慾과 願望을 그 作品 속에 담어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참으로 그 態度는 보고 듣기에 마음이 후련하고 든든하고 또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안할 수가 없다. 作家가 펜을 잡은 그 瞬間 그는 벌써 現世的인 苦難에서 超越한 聖子의 心境과 같은 豁然한 視界가 眼前에 展開될 것이다.

그들은 歡喜에 차고 眞實에 充滿하여 철철 흘러 넘치는 制作의 意識을 處置하기가 困難할 지경이리라. 情熱을 쏟아부어 펜을 달린다. 表現이 不滿하면 북북 긁고 다시 쓰며 때로는 종이를 찢어가면서, 『새로운 무엇』을 그려보려고 애쓴다.

누가 이것을 敬虔한 瞬間이라고 하지 안할 것인가! 그러나 作家로서 詩人으로서 누구나 다 가진 이 瞬間이 우리의 評價 對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말을 할 必要가 없다. 이것은 말하자면 『作品 以前』의 한 포-스이다. 作品 以前의 態度라든가 準備라든가는 『作品 以後』에 있어서 거의 問題가 되지 안는다고 해도 조할 것이다. 우리가 問題삼는 것은 作品 바로 그것이다. 『作品과 그 以後』만이 作家의 生命을 지배한다.

勿論 作品 以前의 그 準備와 態度는 不知不識 間에 作品 속에 透하는 것이겠지만, 結局은 完成된 作品 속에 담겨있는 熱情과 叡智만이 우리의 鑑賞과 評價의 對象이 된다. 主觀的인 熱情과 準備가 雄辯한 筆致로써 作品 속에 客觀化되지 안혀서는 아니 된다. 이때에는 벌써 作品 以前은 그 存在 理由를 일어버린다. 作家의 作品 以前의 如何한 努力, 苦悶, 意欲도 이 作品 그것의 先驅로서만 意義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作品 그것만이 우리의 評價의 對象이 되며, 그것이 없이는 作家의 그러한 努力, 苦悶, 意欲을 찾아볼 道理가 없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作家는 두말할 것 없이 作品을 써야 한다. 이것은 平凡하고 當然한 말이다.

그러나 果然 作家에게 있어서의 作品 以前이라는 것이 全然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것에 對하여 좀 생각하여 보고자 한다.

作品이라는 것은 突然히 어떤 한 때의 氣分이라든가 衝動으로써 創作되는 것이 아니다. 勿論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特定한 作家의 稀有한 境遇일 것이고, 大概是 努力의 結晶이고 苦悶의 産物이며 意欲의 實現이라고 할 수가 있으리라. 作品 以前에 있어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精神的, 肉體的 過程(體驗)이 없이 그냥 作品이 써지는 것이 아닐 것이니, 作家에 있어 作品 以前이 그 以後와 같이 作家 自身에게 있어서 重要な 同時에 讀者側에 있어서도 作品 以前의 努力, 苦悶, 意欲이 問題되지 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卽 作品 바로 그것은 그러한 것의 結晶이요 産物이요 또 實現인 까닭이다.